

우간다의 교육과 의료 환경을 바꾸는 손길



아프리카 우간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한 여혜화 베네딕도 수녀.

여혜화(73) 수녀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구에 위치한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에 입회했다. 가족들의 만류가 있었지만, 여 수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예비 수녀로서 수련 과정을 보내던 여 수녀는 2년이 채 안 돼 수녀회로부터 유학 제의를 받았다.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여 수녀에게 필리핀에 소재한 가톨릭재단 산하 대학교 진학을 추천한 것이다.

1976년 간호학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한 여 수녀는 귀국 후 유기서원을 하여 정식 수녀가 됐고, 수녀회 재단에서 운영하는 파티마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평생 수도자로 살 것을 맹세하는 종신서원을 앞두고 여 수녀는 소록도병원 파견을 자원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환자 간호에 매진했고, 일요일에는 환자들의 집을 찾아 나섰다. 한센인들의 손톱과 발톱을 깎아주고 안부를 묻는 등 그들 속에서 함께 살아갔다. 소록도병원에서 3년간의 봉사를 마친 여 수녀는 1989년 이탈리아 로마의 수녀회 본부에서 종신서원을 하고, 평생을 봉사하며 살아가겠다고 맹세한다.

가장 멀고, 가장 힘든 곳으로


해외 파견을 자원한 여 수녀는 우간다를 선택했다. 수녀회에서조차 첫 진출지역이었기에 아무런 기틀도 닦여있지 않은 백지의 상태였다. 우간다에 도착해서 처음 도전한 것은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는 일이었다.

유럽과 미국 신자들이 보내준 후원금을 조금씩 모아 1995년 수녀원이 딸린 작은 진료소, 성 베네딕도 헬스센터를 열었다. 진료소의 운영 원칙은 환자가 돈이 없어도 치료 먼저 해주는 것이었다.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헬스센터를 마지막으로 방문한 후 '살아서 해볼 수 있는 치료는 다 해봤다'고 만족해하며 눈을 감는 환자도 있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여 수녀는 교육시설 설립을 계획했다. 1995년 유치원의 문을 열어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2000년에는 초등학교를 추가로 설립했다.

우간다에서는 초등교육 7년 과정을 마치고 난 후 국가고시를 치르는데 상위 득점자만 중등교육 진학이 가능하다. 여 수녀가 운영하는 성 베네딕도 학교는 국가고시 합격자 수가 다른 학교보다 많아 지역의 명문 학교로 손꼽힌다.

여혜화 수녀가 우간다에 진출한 지도 어느덧 28년째다. 여 수녀는 다른 수녀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와중에도 묵묵히 공동체를 지키며 현지의 활동을 이끌어왔다. 허허벌판인 진자 지역에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일은 쉽지 않은 않았다. 초기에는 사람들의 냉랭한 반응에 상처 입기도 했고, 언젠가는 돌아갈 사람이라는 의심도 많이 받았다. 여 수녀는 지금까지 이뤄낸 가장 큰 성과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앞으로 계속 활동해도 된다는 인정을 받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혜화 수녀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현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마음이다.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우간다에서 지역 주민들과 삶의 마지막을 함께 하고픈 생각도 갖고 있다.  글 정재학 작가